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新黨運動과 米內內閣

一

急轉히 進展되는 新黨運動은 이제 米內內閣의 運命까지 念慮할程度에 일으럿다고 보여진다 周知하다시피 新黨運動의出發은 지난四月三十日 久原氏의自派解消聲明表示의 一石으로써 始作되엇고 또現在로도 이運動의 中心人物은 久原氏이다 氏는 于先 自黨의所謂 政友久原派의 解黨을 表明하고 다음으로는 民政黨의町田總裁와 會見하여 既成政黨의 解消로부터 新黨에의 새出發을 慫慂하엿다 그러나 町田氏는 依然 自重的態度를 堅持하고 久原氏의 熱意에도 不拘하고 귀를 기우리라 하지안코잇다 久原氏는 民政黨態度如何에 不拘하고 一擧에 米內首相에게 所謂 時局打開進言書를 手交하엿고 이것이 閣議에서 容認되지아니하매 內閣參議를 辭任하엿다 그리고 그辭任理由는 政見의 相違에 잇다고 發表되엇다。

二

이제 問題의 時局打開進言書에 依하면 먼저 新東亞建設을 爲하여 外交 國防에잇서 取하는 比較的具體的條項을 列擧한後 이것을 遂行함에는 現狀으로서는 어려운것이라는것을 말하고 끄트로『綱紀를 振肅하여 人心을 緊張케하며 內外의 庶政을 刷新更張하여 時局을 克服하기爲하여 國民指導의 地位에 잇는者는 먼저 責任을 明確히하여 臣節을 온전히하여야한다 이제國內體制整備의 氣運이 漸勢하여 新態一新의 要求가 痛切한 이때 自己를 反省하여 虛心坦懷 重責을 뗀 閣下가 自進하여 그職을 보여주는것이 最善의方途라고 確信한다』고하엿다 그要旨가 內閣의退陣을 促進하는것인지 現內閣自身에 政治體制 強化에 進出하려는데잇는지는 明確치안코나 어떠든 現內閣에 滿足치못하는것만은 事實이다 어맡에쫏는다면 米內內閣으로서는 退陣하든지 政治體制強化에 進出하든지의 두가지 길밧게 남지안헛다 그런데 米內內閣의 新政治體制에의 主導性은 벌서 喪失되엿다 뿐만아니라 國民의 發提한協力만을 바라는 米內內閣으로서는 到底히 이것을 勵行할수업슬것이다。

三

久原氏의 一石으로서 內閣의運命까지를 念慮하는것은 一見 速斷의嫌이 업지아니하다 뿐만아니라 久原氏에게 對하여는 自己의辭明에도 不拘하고 여러가지의 推測이잇다 그러나 久原氏의 所謂新黨運動에잇서 그新黨自體에 對하여는 누구나 反對하는사람이업다 그는 實로 時代에 따른 偉大한背景을 가지고 잇는까닭이다 그는 現段階에잇서서의 日本의政治進路를 自覺한 사람의 한사람뿐이다 어떠한後에는 취하게될여오는 客觀的情勢와 이情勢를 明察하고잇는 國民이잇다 여기에 新黨運動의強點이잇다 政友中島派를 爲始하여 그統一派 國民同盟 時局同志會 社大黨全體成政黨이 이미 解消의 意思를 表示하엿고 民政黨의 一部까지도 總裁에게 그翻意를 促進하엿거니와 新黨의網領으로 眼目되는 近衛公까지도

聖上關西行幸

今日宮城御發輦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빗나는 紀元二千六百年에 際하사 伊勢神宮과 山陵에 御親拜하옵시어 皇祖皇宗의 神靈에 御祈念하옵시기 爲하사 드디어 今九日午前九時十分 宮城御發輦 關西에 行幸하옵신다 恒常 皇祖를 御敬崇하옵시고 敬神의 軫念이 무르옵신 陛下께옵서는 今番의御參拜는 至高하옵신 御旨로 하옵시어 地方行幸은 아니하옵시고 地方官의拜謁 關係地方의 府縣行政奏上도 中止하옵시어 御參拜가 끗나옵신後에 歸御하옵실이시라고 拜承된다 宮城御發輦에 當하옵서는 大勳位를비롯하사 各種勳章을 御佩用 御威儀를 嚴肅히 하옵시고 東京驛으로臨幸하옵시어 陛下께옵서는 이에서도 時局下 御內意에 依하날 御軍裝으로 西武侍從長, 軍사 中止하여오던 米內首相以下 文武顯官의 奉送도 特히 允許하옵시어 午前九時二十分 御發車 御途中沼津、濱松、名古屋、米原各驛에 御停車하옵신後 午後五時三十分 京都驛에 御着車 同午後五時四十五分 京都御所에 御着 御七年만에 御駐輦하옵시고 十日午前七時二十分 京都驛 御發車 御十二年만에 神都宇治山田에 行幸하옵시어 午前十一時十二分 豊受大神宮에 午後一時五十四分 皇大神宮에 御參拜하옵시는데 이 兩時刻은 我國民의 精神을 鼓舞하는 至嚴至高한 時刻으로 全國民은 一齊히 遙拜할것이다 그리고 十一日은 御八年만에 畝傍山陵 橿原神宮에 御參拜하옵시고 十二日은 京都의 明治天皇 孝明天皇 仁孝天皇 昭憲皇太后 英照皇太后의 各山陵에 御參拜하옵시며 十三日 東京還幸 御後十四日에는 多摩御陵에 御親拜하옵시어 今番行幸을 마치옵실다고 拜承된다

聖上陛下 惶恐·손소御揷秧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稻作御獎勵의 御軫念으로 恒例에依하사 八日 宮城吹上御苑의 御用水田에 出御하사 親히 泉武官長外 侍從武官等을 데리옵시고 水田에 들어가사 服部御用掛以下의 奉仕로 早苗를 손소 심으옵시어 民草의 移秧하는 勞苦를 親히 體驗하옵시고 三時나 入御하옵섯다

平安神宮서 玉體安穩祈願

【京都電話同盟】聖駕를 奉迎하옵는 京都에서는 ...

全伊國汽船에 航行停止命令

【羅馬七日發同盟】伊太利汽船會社가 七日本國政府로부터 正式通告를 바든바에依하면 伊政府는 目下中立諸港에잇는 全伊汽船에 對하여 出航停止를 命令하는同時에 航海中의汽船에 對하여도 最近의 中立港에 入港하도록 命令을 發하엿다

梨本祭主宮殿下 內宮齋館에御參籠

【宇治山田電話同盟】光榮의 날을 마지하는 神都 ...

肇國聖地에 瑞氣漲溢

【橿原電話同盟】...

神都의 奉迎準備

【山田電話同盟】聖上陛下 神宮御參拜의 佳日도 切迫되어 神都에서는 ...

米佛現地當局 風說이라否定

佛租界管理委讓問題

【上海七日發同盟】...

華北政務委員會 主要職員銓衡

【北京八日發同盟】今次華北政務委員會의 ... 七日左와如히 ...

荊門沙市를逐次占領

第五、第九戰區連絡遮斷

【○○에서八日發同盟】八日午後二時坪島、松田、高木、藤崎、乂合部隊는 要衝荊門(別名江陵)의 北門으로부터 城內에 突入하여 目下殘敵掃蕩中이다 그리고 同部隊의 一部는 卽時그東南四키로의 沙市로 向하여 猛進中이다

【○○八日發同盟】八日午後四時陸軍機의 偵察에 依하면 我方坪島、鐮浦部隊의 先鋒部隊는 드디어 澤州東南四키로長江에 臨한 沙市市街에 突入하여 市政府以下敵機關屋上에 日章旗를세웟다

【○○에서八日發同盟】八日午後二時卅分 我空中偵察에 依하면 荊州陷落에依하여 沙市는 大混亂狀態에빠저 敵의敗退部隊에섞겨 住民은 東南方으로 又는揚子江을 渡河하여 對岸埠洞로向하여 續續避難中으로서 同時刻 我軍은 이미沙市市街가까히肉薄하고잇섯다 그리고 沙市를 根據地로하고잇든 敵의江防艦은 荊州陷落과同時에 上流로敗走한模樣으로 어미艦影이보이지안엇다

【○○八日發同盟】北方襄陽의西滅과함께 荊州의 攻略은 敵抗戰 陣營에 자못甚大한 打擊을 주엇는데 就中第五戰區의 揚子江沿岸 洞庭湖西岸의 敵第九戰區와의 唯一無二한 連絡路線은 荊州占領에 依하여 完全히 遮斷되어 襄西의敗戰을 挽回코저 第九戰區로부터의 兵力轉用을企圖하여 荊州沿岸方面에 集結을 急히하고잇든敵의 增援部隊는我 荊州攻略에 依하여 오도가도못하고잇다

漢水對岸에 上陸하는 ○○部隊

長江下流의 五月中戰果

【上海八日發同盟】揚子江下流湖南 湖北方面 陸軍各部隊는 昨今의 炎熱을 무릅쓰고 더욱士氣旺盛하여 警備와 殘匪掃蕩에 不撓不屈의 活動을 繼續하고잇는데 그때문에 占據地域內 兵匪는 潛滅衰退의 一途를걸게되고 住民의 復歸도 急激한增加를 보여 治安攝擾은 逐日向上하고잇는데 同方面의 五月中綜合戰果는 다음과갓다

交戰敵兵力	六萬
交戰回數	三百餘回
敵遺棄死體	四千九百九十八
捕虜	六百二十九
鹵獲品 各種砲	十五
重輕機	三十
同彈藥	九千六百九十二
小銃	一千十三
同彈藥	二十萬一千六百十七
[illegible]彈	六百四十六

郯城西北方敵擊破

【濟南八日發同盟】上井、有田兩部隊는 六日午前九時 山東省南部郯城西北方 馬鞍村附近에서五十七軍의 約千五百을 攻擊하여 이를潰走시켯는데 戰果는 다음과갓다

敵遺棄死體 百二十 捕虜 二 鹵獲品 輕機關銃 一 小銃十、同 彈藥多數

大咽墩集突破部隊

當陽敵本陣에肉薄

【○○八日發同盟】七日夜大咽墩集을 突破한 横山、大澤、長崎各部隊는 八日朝來敗敵을 急追 進擊하여 午前十時에 當陽東北西河에 進出 當陽의敵本陣地에 向하여 殺到하엿다

【○○八日發同盟】七日 日沒과 同時에 當陽一帶의 敵을 粉碎 攻擊前進을 開始한 我各部隊는 夜陰에 渡河를 決行、同河西岸의 大咽墩集及 그南方襄山을據點으로하는 敵의 前進陣地에 殺到猛擊을 퍼부어 敵約二千을 擊破하고 夜半大咽墩集에 突入 戰果를 南北方으로 擴大하여 敵前進陣地全線을 確保하엿다 同時에 七日朝荊門、沙市 公路를 遮斷한 村井、村山、柴田、立花及坪島 鐮浦、高木、藤崎等의 南方兵團은 드되어 日沒과 同時에 進擊을開始하여 八日朝同公路 西方의 新浦河、郭家場을 連絡하는 線에 進出하여 敗敵을 急追中이다

襄西各地鹵獲品

【○○七日發同盟】襄西地區의敵은 退却에當하여 軍需品의徹底的 燒却戰術을取하고잇는데 我急激한 追擊에 燒却할 餘裕가업슨 城鎭에는 作戰地에만흔 彈藥糧食이 集積되어 이것을鹵獲하엿다 我進擊部隊는 編部隊이엇기때문으로 襄東殲滅 燒却한것(手)重機彈藥一萬五千 ... 迫擊砲十五 重機十六 輕機四十二 小銃一千五百八十三 迫擊砲彈五百七十(全部燒却) ... 鹵獲品의 主要한것은다

敵死者만六千五百

漢水渡河作戰戰果

【○○八日發同盟】一日의 漢水渡河作戰開始以來 大日까지의 五戰區에 收容된 敵의 ... 敵第五戰區의 主力 ... 二千

藤堂少將告別式

【九江八日發同盟】三日陣中에 急逝한 故藤堂少將의 告別式은 七日午前十時五十分부터 ○○軍部中庭에서 神式으로 執行되어 參謀總長宮殿下를 奉始하와 陸軍大臣、教育總監、支那派遣軍總司令官以下在支各部隊長 其他로부터 贈送된 花環으로 裝飾된 靈前에 齊主○○部隊長을 비롯하여 隷下各部隊代表及 日支官民多數參列下에 嚴肅盛大히 執行되엇는데 그中에서도 在留外人代表크라크氏의 弔辭는 少將生前의 武勳과 治安工作에 對한 殊勳을 稱頌하는 것으로 ... 그리고 佛式에 ... 本願寺에 安置된後 近近內地로 無言의 凱旋을할것이다

飛行場擴張等

米、太平洋防備強化

【산프란시스코八日發同盟】米國은 多數의 上院議員 더욱이 孤立派議員에게 非常한 衝擊을 주고 ... 加州에서의 海軍擴張、飛行場의 擴張 ... 아라메다海軍飛行場擴張에 六百五十萬弗、산디에고海軍飛行場增強에 五百六十萬弗 ... 三百八十萬弗이 各各配定되고 ...

伊、데보노元帥를 南方軍司令官에任命

【羅馬七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七日植民地軍總司令官데보노元帥를 伊太利南方軍司令官에 任命하엿다 데보노將軍은 伊太利軍部 第一의 阿洲通으로 一九三五年에는 東阿伊太利植民高等辦務官이엇고 에디오피아戰爭에는 遠征軍司令官으로서活躍、그後元帥에 昇進하엿다 데보노元帥의 南方軍司令官任命은 伊太利의 作戰上 注目된다

웨이간戰線서도

獨軍이斷然優勢

【베른七日發同盟】北佛웨이간線에展開된 新戰術도 프랑드르戰局과同樣으로 獨軍에 有利하게展開되고잇는模樣인데 베른市의有力外人消息通에서는 新戰局將來의 決定的으로 有利하여도 적어도 一個月間은 佛軍의大規模의 反擊은 不可能하리라고 左와如히 觀測하고잇다

一、佛軍의 人的資材의 極端의不足은 웨이간總司令官으로하여금 完全한防禦態勢를 取할수 업게하며 또英國으로부터의軍需器材援助도 적어도 一個月間은 不可能한것으로보인다 即 中立國公使館에서 入手한 情報에 依하면 獨軍은 人的資材機械化兵團의裝備 飛行機數等에 잇서 壓倒的으로 有利하며 此에比하여佛軍의優勢는砲兵隊뿐으로 設使獨軍의 進擊을 阻止한다하여도 佛軍은 大規模의 反攻에 나오는 것은 적어도 一個月內는 絶對不可能한 窮狀에 빠저잇다 佛軍의 不利한原因으로서는 左의諸點이 잇다

一、兩軍兵力配置 佛軍은 알고스地方에 二十個師、瑞西國境에서 모젤河까지의 마지노線에 二十個師를 配置치아니할수 업고 모젤河에서 英佛海峽까지의 正面戰線에서도 五十個師를 配置하여 英佛軍東五個師도其他戰線에 配置되어잇다

一、웨이간線에는 數百의 七十個師團이 配置되어잇다 또지그프리드線에는 三十五선지 師가 到處에 退避際가 中央兵團으로서 기다리고잇다

一、獨軍은 攻擊正面에 少하여 四十個師、機械化部隊五個師(一師團은 裝甲車約一千五百臺로組織)를 對峙하고 이外에 白耳義方面의戰鬪에 參加한 有力部隊가 잇서 ... 企圖하고잇다 佛軍은 白耳義戰線에서 後退하엿을때 多數의 兵器를 遺棄하고 왓스므로 이것이 佛軍의 큰弱點이 잇서서는 ...

伊太利參戰境遇

蘇、土耳其를援助?

【倫敦七日發同盟】伊太利參戰의 切迫에따라 蘇聯政府의 態度가 注目되는 英國政府의 大關心을 끌고 잇는데 倫敦에 達한 情報에依하면 蘇聯政府는 最近土耳其政府에對하여 伊太利의 參戰에 따라 戰火가 地中海에까지 擴大하는 境遇에는 土耳其에 對한 好意的態度를 取하겟다고 確約하엿다고한다 이리하여 伊太利參戰의 攻擊을 加하는 境遇에는 蘇聯은 土耳其를 積極的으로 援助하리라고 하여지고잇는데 그러고 蘇聯·英佛의 外交關係 ... 黑海에 直接 ... 注目을 ...

英空軍猛活動

【倫敦七日發同盟】英空軍省七日夕發表=英空軍은 過去二十六時間에걸처 敵軍前線直後의 重要目的物及獨佛國境內軍事施設에 大爆擊을敢行하엿다

一、我大型及中型爆擊機隊는 어제밤에걸처 敵部隊交通路에 組織的爆擊을 敢行하엿다

一、北方面의 ... 南方 ...

獨軍戰果擴大

各處서웨이간線突破

【伯林七日發同盟】獨逸大本營七日 戰況을 發表하엿다

一、獨軍은 솜므河及 오와즈運河方面에 進出, 豫定대로着着戰果를擴大, 佛軍의 웨이간戰線을 各處에서 突破하엿다

一、獨空軍은 六日夜半 再次英本國空軍基地를 空襲하여 多大한 損害를주엇다

一、六日獨軍이 擊墜한 敵機는 三十七機에 達하고 獨空軍도九機를喪失하엿다

【伯林七日發同盟】獨軍의솜므戰 ... 大五日부터開始되어 必死의防禦를 繼續中인 聯合軍과 目下 激戰을 展開하고잇는데 七日午後二時 ...

獨機、英海岸線空襲

【倫敦八日發同盟】英空軍省發表=

一、七日夜부터 八日拂曉에 걸처 獨空軍은 英國海岸線 上空을 突破하고 英本土各處에 爆彈數個를 投下하엿다

一、사포크에서는 獨空軍爆擊機一機를 擊墜하엿다

米、現役武器를

英佛側에供給

【華盛頓七日發同盟】聯合軍側의 上記給을 許與하엿다고 말하엿다 ... 陸海軍은 現役中인 軍用機、大砲其他兵器의 供給 ...

健康과長壽!

몸弱한분大歡迎

日常몸이弱하여困難한분의大部는 腸內의有害菌에서發生하는 『腸毒』이原因입니다 ... 누구나아실수잇는 『乳酸菌製劑』 本一冊限 東京神田小川町三ノ十三 藥理化學研究所에 藥劑學博士가 ... 乳酸菌의 活力으로『腸毒』을除去하면 健康하게 대번에 ... 無代로 贈送합니다

(廣告)

胃腸に わかもと

強力な消化酵素 ... 粉末卅日分 壹圓六十錢 三百錠 壹圓六十錢

結核에 待望!

直達短期治癒의 成功

燐脂體特異레루펜合成劑

肺結核 肋膜炎 腸結核 腎臟結核 痔瘻 肺炎加答兒 가리에스 肺門淋巴腺 腺病虛弱質

醫科學界의大躍進! 結核治療에大革新!

直達新劑 ダイレク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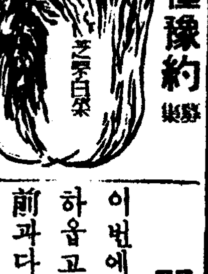
カプセル入 廿球入 二圓 一〇〇球入 八圓

贈呈 文獻

代理店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發賣元 東京·京橋·木挽町七ノ二 明鱗商會研究部

菌의直達撲滅을! 自覺症의好轉을! 神経系의賦活을! 抵抗活力의賦與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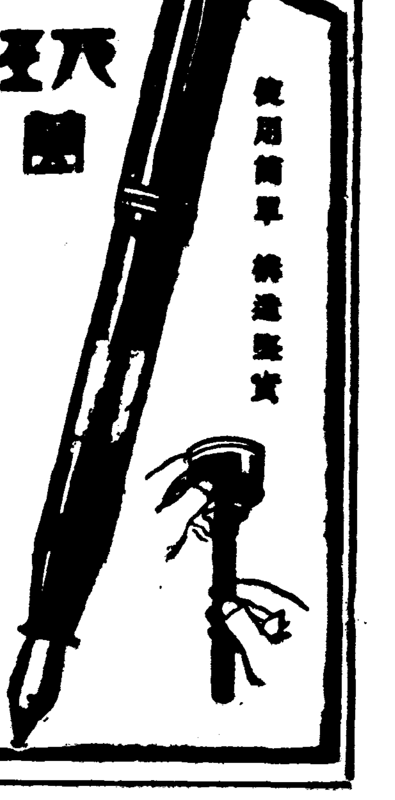
秋菜種豫約 芝罘白菜 信用 興亞農園 安東市一番通五丁目三

開業謹告

이번에 生이 京城帝大醫院産婦人科를 辭任하옵고 左記場所에서 開業하게되엿사오니 前과다름업시 愛顧하여주시믈바라나이다

開業場所 京城府臥龍町七八 (授恩町매스停留場前)

醫學博士 金錫煥



パイロット 萬年筆

使用簡單 構造堅實

金보다단단하지고 決코녹쓸지안는 파이롯트合金

¥2.00

麥作은平年作確實
一千五百萬石豫想
倉庫속에待機런米穀의出廻活潑
今後의總力은移秧에集中

…되고 특히남조선 지방이 심하여평 년에비하여칠할작 밖게 되지안흘것 으로 보히는것이 지난번 전조선에 끝고 루내린비에 숭흥들려 그후결 실상항은 대단하 조서 남선지방에 서는 벌서비어드 리기 지작하는곳 북선지방에서도 이달 안으로는 수확을 시작할터이

…하고잇는중인데 평년작은 확실 하여일천오백만석은 무난할 라고한다 맥류가먹게될때 염려 되엇든 춘궁기는 완전히 극복 되는셈인데 맥작에 안심하엿 든지 요사히 창고속에기괴파 무더두엇든 쌀도상당히활발하게 출회(出廻)되기 시작하엿스므 로 춘궁기이후의 식량대책은 순 조로 진행된다고 말할수 잇다 압으로남은 문제는 이앙(移秧) 이 순조로되느냐하는데 달여잇 는데 십오일경부터 이달하순에 걸처 전조선에 시작되는"모내 기"에는 농림국 간부 총동원

…잇다 식량문제의 선도는 안결 파 초조가운데 시국나 라보고 …리고잇는 중이다

食糧難에"감풀注射"

遊興에脫稅 하려다發覺

유흥세를 탈세하려다가 경찰에걸린 요리집사무원 — 취입 부내서린정(瑞麟町)요리집 명월관(東明館)의 사무원 중학정(中學町)팔십오번지일호 이(李)○○은 이번 동명관이 …

…이 종로경찰서에 신고하엿스므 로 종서고등계에서 곳 이게헌 을 검거하여다가 「외국인까지 끌어너허 탈세를 하려한것이가 중하다」고 방금 엄중취조중이 다

皮革製品價格抑壓
正札과查定證업스면못팔도록
商品查定委員會結成

구두『콘텀크』『보스턴백』등 피혁제품은 규격(規格)이 통일 되지안허서 이것의가격결정은 거 이불가능하다고 보아왓는데 경 기도경찰부 경제경찰과에서는 업 마전 업자들과 협의한결과 피 혁제품 사정위원회(查定委員會) 를만들고 이위원회에서 사정한 …

六、民間度 實施에關한件
七、私設講習會의 取締强化에關한件
八、國勢調査에關한件
九、河川及 河川附近에 對한 …
◇勸業係所管
一、食糧配給에關한件
二、更生指導 部落及共勵部落의 指導强化의件
三、優良畜産指導에關한件
四、堆肥計畫實施에關한件
五、自給肥料의 增産勵行에關한件

곰보된"아스팔드"
急速改修를府民要望
西大門에서麻浦가는鋪道가말성

서대문에서 마포(麻浦)로가는 길은 소화십일년에 길폭을 늘 리고 전차도 쌍선으로 되는동 시에 길폭의반가량을『아스팔 드』로 부친것인데 이시공을한지 벌써 오년째로 이제는『아스팔 드』가 배겨지고 구멍이뚤려진 자갈이굴러나와 시끌의 삼분도 로보다도 나뿐길이되고 말엇다 이길은마포방면으로 가는사람들 작 어물을실어내는 일이 잇서 길이어서 온종일자동차가 끈칠 사이업서 길이상하기가 쉬운데 잇다

다가 이러케오년동안 보수공사 도하지안허 나빠질대로 나빠 진것이다 그리하여 자동차나자 전거가가려면 너구 불통하하 여 달릴수가업스며 비가약간만 와도 이곳에물이고이어 자동차 만지나가면 보도우에 것는사람 들의옷을 흙바버려주고만다 그 리하여 이곳의주민들은 부청이 하루바삐 서둘러서 곰보가된이 길을 깨끗이고처서 편안히다닐 수잇게하여주기를크게바라고 잇다

纛島面區長會議

【纛島】시외고양군뚝도면(纛島面)에서는 팔일오전열시부터 면 회의실에서 면내구장삼십팔명을 소집하고 구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가튼 토의가잇섯다

◇內務係所管
一、愛國班의 活動促進에關한件
二、勤勞報國團의 指導에關한件
三、貯蓄獎勵에關한件
四、節米運動에關한件
五、民間所在鐵을 政府에 賣却의件

步步에드리운綠陰 (昨日 德壽宮에서)

어저귀代用品으로
"아까시야"껍질을利用
各種纖維飢饉에새로운發見

…전시하에 섬유(纖維)라면 무 엇이고 씨(一)면조차만지 귀하여 진때 충북도농림국에서는 이저 …

귀대용품으로 새삼스립게 "아 까시야" 나무껍질을 발견하엿다 … 충북에서는 이껍질을 가공하여 로-푸,솜, 어분(魚粉)을 넘는 부대를만들엇는데 어저귀부대에 조금도손색이업는 훌륭한것이 되엿다 그래서 충 국에서는 강도에도첨이 여 부녀 …

戶稅增收六十萬圓
賦課戶數八萬千百十六戶에
每戶平均朝鮮人은十三圓·內地人은廿八圓

경성부민은 소화십오년도에잇서 호별세 판계의 세금에대하여한 호(戶)평균 얼마씩이나 내게되 는가 이제 경성부 세무과에서 최근에 작성한 계산표에 의하 면 다음과갓다
금년도에 도세호별세(道稅戶別稅)와 여게 따르는 부세 부가세(府稅附加稅)가 부과되는 총부과호수 팔만일천백십륙호 …

群鷄一鶴의女性
戰時下享樂生活罵倒
赤十字社에看護婦志願·獻金

부내길야정(吉野町)일정목 칠십 일번지 송본정자(松本貞子)씨는 방 …

定州扶陽學院에
一千圓式을寄附
金炳泰、金仁淳兩氏가

【古邑】정주군고읍면 …

日曜講話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天國의一面 …
◇天然町石橋教會 午前十一時 어린이의將來 …
◇三清町教會 午前十一時 어린이의마음 …
◇仁川敬町教會 午前十一時 獻身 …
◇仁川大和町教會 午前十一時 生命의光 …
◇天道教堂 午前十一時 罪徒心志惟在正心 …

▲六月九日(日曜日) 陰五月四日 ▲干支 癸未 ▲日出 午前五時十一分 ▲日南中 午後零時三十三分 ▲日入 午後七時五十三分 ▲晝間 十四時四一分 ▲月出 午前八時一七分 ▲月入 午後十一時三二分 ▲滿潮 午前七時二〇分 午後七時三〇分

딱 … 생활필수품도 자라차례로 등 …

今日의天氣 晴曇

四醫專蹴球聯盟戰
京醫專對世專(午前十一時)
平醫專對大醫專(零時半)
世專對平醫專(午後三時)
京醫專對大醫專(四時半)
明十日 延專球場에서
當番 校世醫專 本社後援

熱戰한平壤醫專軍
京醫專軍을擊破
四專門蹴球戰【第一日】

【平壤】【京醫】 …

東亞競技大會【第四日】
日本籠球에制覇
四百米繼走比島優勝

陸上

四百米繼走決勝
1、比島 四三秒一
2、日本 四三秒七
3、滿洲 四三秒七
4、中華

卓球

옷三

옷三競技戰績

自轉車

日本軍이優勝

軟式庭球

野球

滿洲軍이勝利

蹴球

比島對中華 蹴球無勝負

籠球

中華 49 42 滿洲

學生蹴球리그
今日로서終幕
普專軍不得已棄權

日本 40 35 比島

職業拳鬪戰
德永選手判定勝

學生籠球夏期리그

中 專 32
大 學 49
醫 專 35

映畫俳優志願者手引書
映畫俳優協會出版部

裸體美人寫眞集
浮世繪美人版畫集

廣告

健康의恢復과增進에
藥의濫用은不可!
도리어健康을害하기쉬어

健康을恢復하고 增進식힌다고 이藥저藥을濫用하는사람이만흐나 이것은도리어健康上조치 못할뿐아니라 經濟的으로도避할일이다。더구나 지금과가튼非常時局에잇서서는 모든物資 와原料의欠乏으로、品質이粗惡해지고 性能이劣下해진代用品이만흠으로 더욱조심하야藥을 쓰지안흐면안된다。

世界的强壯劑ネオトン(NEOTONE)은 …

(本劑의信用에關하야는 醫師諸先生께問議하야보시라。)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米國加州·天津·臺北

效果本位

適應症

包裝 350錠

世界的强壯劑
ネオトン
네오톤

船華豪團劇 九日부터
端午特別公演
春香傳 全篇
東劇文藝部編

勿驚! 登場人物延人員百餘名動員!
華麗한衣裳! 良心的인裝置!
萬古不朽의名劇인決定版을꼭한번
鑑賞하시라

東洋劇場

文明을모르는거리

仁川府內의舊市街에電燈업는世帶數가 二千四百餘名의多數

【仁川】 인천부사회계에 조사한 바에의하면 부내에서 전등을달지않고 가름거리는 동안불이 혜 사는 사람이 금년사월에 입되는 제하고 구시가지에만 이 호수로는 칠백호에 세대수로는 이천사백여명이나된다 여기에 석유를 딸린다니는 사람의수가 조선사람 다섯명에 지나이두명을 합하여 일곱명이나 되는데 한사람이 거래하는 석유가 하루두홉씩으로 매일당꼴로 파는호수가 청호다된다고 한다 이로서 발전미천의 명암이 중수월보이고있다 그동에는 대부분이 노동자로서 요즘은 전등수리하여도 경찰당국에서는 재료가업다고 달어수지안허 동자들을 켜는사람이 부러간다고한다

興畫作業을陳情

不遠間實現

仁川商校學級增設 期成會에서猛活動中

麥適期刈取週間

十八日부터二十五日까지 富川郡서積極督勵

開城防共協會에 五百圓을寄附

汚物掃除費徵收코 督促狀發送後差押

旣成服、農用藥品等의 最高販賣價決定

慶南物價委員會에서

桃山町에엽동이

統制經濟協力會

來十日仁川府서創總開催

【仁川】 경제통제의 강화철저에 협력하기위하여 인천부에서는경 제통제협력회(經濟統制協力會)를 열고 ... 결성시키려고 인천상공회의소와 협의하고 인천상공회의소에서각 ...

落葉松種子 早期採取嚴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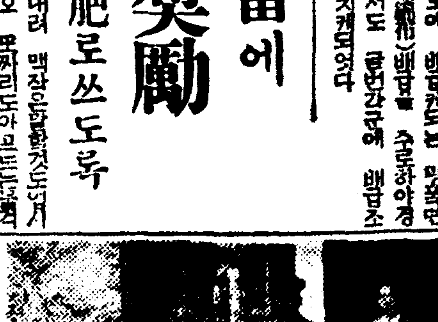
思慕亭을켜드는 遊興輩禁止

물적은天水畓에 棉播種奬勵

비오면綠肥로쓰도록

榮州纖組合創立

順天高等女校 開校式盛大



麥嶺期貧面民의 千百餘戶稅代納

錦山金鳳燮氏의壯擧

洪城通行調査 四個所서三日間

今日

第七回 畿湖蹴球大會

於 永登浦放鶴臺運動場

主催 朝鮮日報永登浦支局

（觀覽無料）

江華

全江華面對抗競技大會

◇時日 六月九日 ◇場所 江華中央公設運動場 ◇主催 江華體育協會 ◇後援 江華新聞記者團

六十餘布木商集合

違反境遇를質疑應答

開城署經濟座談會開催

洪城에甘雨 農民의愁眉展開

今後론旱魃念慮업다

苗板肥培에努力하라

南鮮水電工事는今秋着工

孫全北知事談

山澤檢事正來長 司法事務視察次

農民日에移秧

義捐金이遝至

新高山體育協會에

婦人勤勞隊動員

移秧勞力不足으로

幼年主日校生들 聯合運動會開催

綾州地方創氏 屆出者續出

藥種商試驗施行 江原道三郡에서

岩泰島前海에 "富西"豐漁豫想

農村振興産業大會

懇談事項

一、農村振興強化徹底에關한件
二、稻作改良에關한件
三、田作改良에關한件
四、自給肥料增産에關한件
五、棉花增産에關한件
六、繭增産에關한件
七、畜産獎勵에關한件
八、林業獎勵에關한件
九、貯蓄獎勵에關한件
十、副業에關한件

增米計畫에拍車

大德郡서囑託委員傳習會開催

年收二百圓未滿의 免稅戶數三割六分

港都釜山府民의生活狀態

棉花再播種督勵

須磨金融支部長 長津管內를視察

農業報國一層强化 襄陽郡守實施指導

丹城小學父兄會

個人權利만主張

一般人士의物議頗高

仁川압바다島嶼巡禮記 （大舞衣島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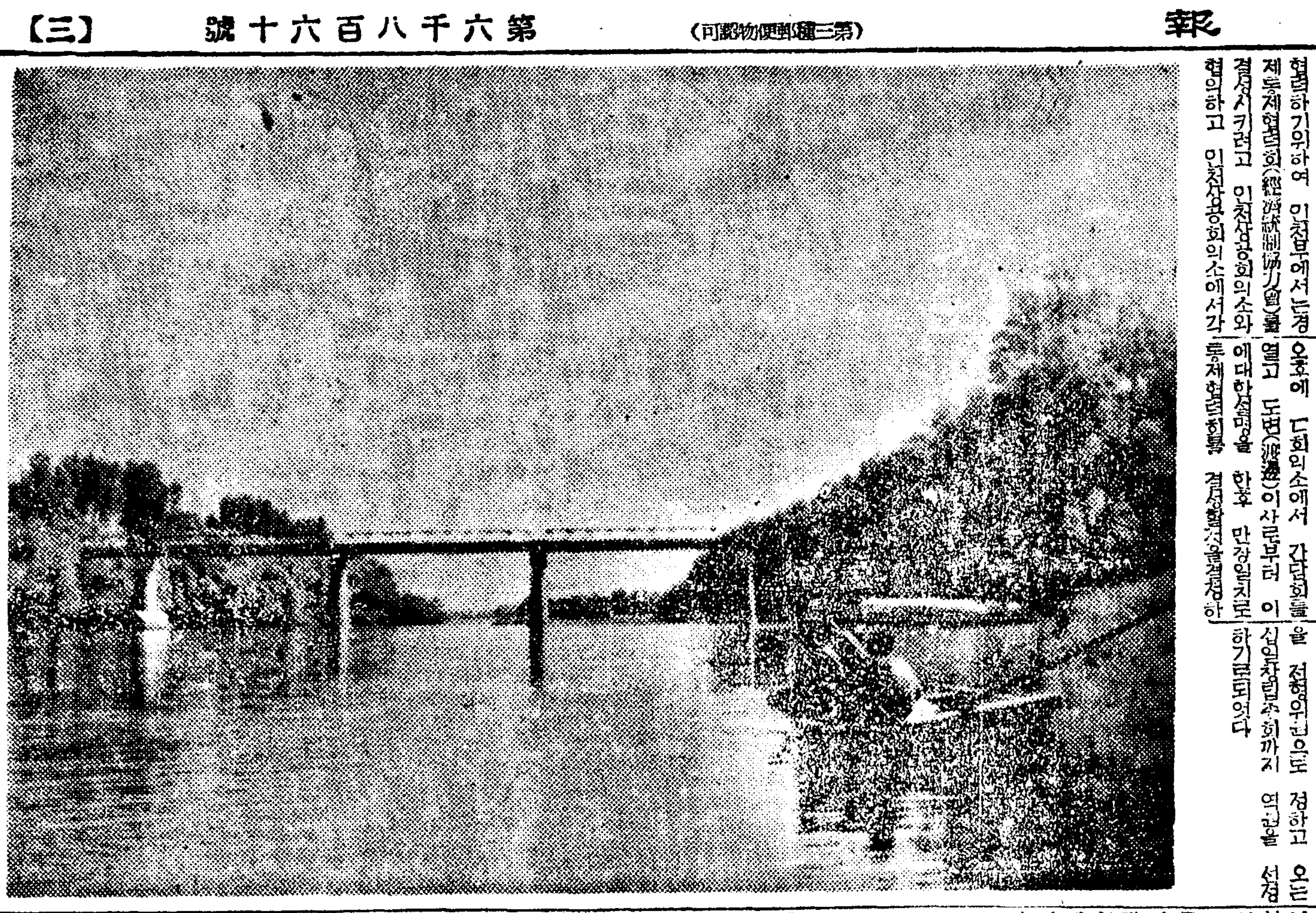
이곳名産인새우는 中國料理의至寶

그러나漁場施設不足이遺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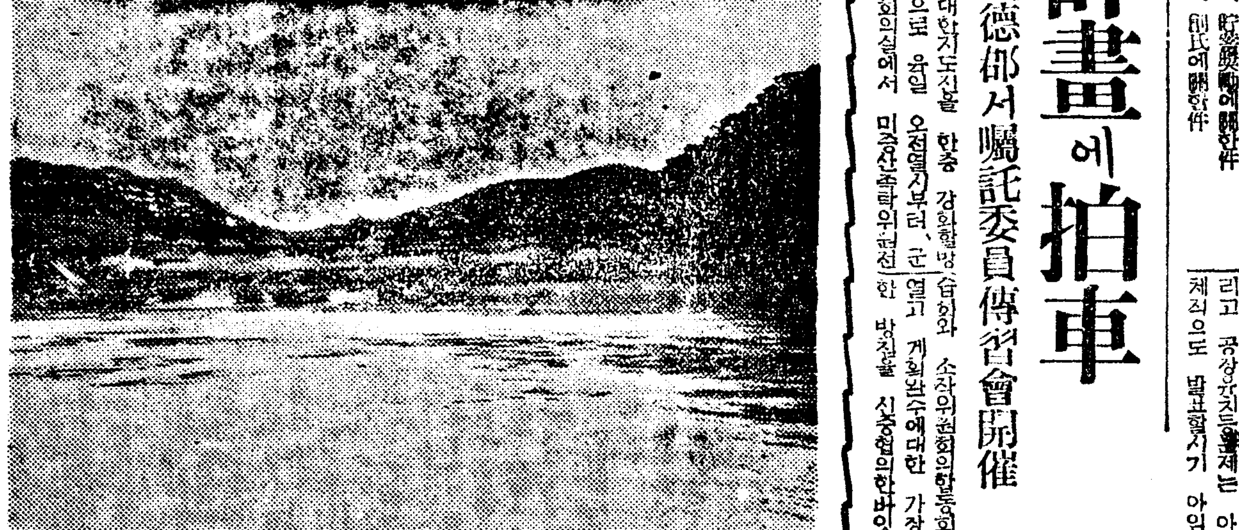
仁川特派員 李源昌

【仁川】 경기도어업조합연합회의 판내에서 손까락을 꼬바어느섬에는무슨고기가 만히 잡힌다는 것은 어업자가아닌 우리들로서는 ... 철을따라 유수한것을 헤아려본다면 이월부터 사월까지는 연평(延坪)바다의 조기가 첫손까락을꼽을것이고그다음으로 덕적도의민어가 ... 부천군 용유면(富川郡龍遊面) 대무의도(大舞衣島)의새우 잡이가 ...

이섬의호수는 일백오십호에인구가팔백명이되는데 그섬사람들도 대부분이어업으로서 생활을 이어간다 ...



清風시처가는江邊 （平壤）



強한白色이를맨드는

特殊한 酵素가 이를 튼튼케한다!

資生堂 齒磨

滲透性이强한 特殊酵素를含有한粉末을 主原料로하엿스므로 絶對로琺瑯質을磨滅시키지안코 自然의光澤을 가진 아름다운이를 길니 맨듬니다

紙袋 八十전

東京 銀座 資生堂

滋強飲料

働く人に

蜂ブドー酒

疲勞한때잡수시라! 이것한잔이가진滋強素는攝取되어體內로드러가서疲勞를一掃하고다시새로운元氣와健康을增進시킴니다……

15—30

京都帝國大學 財團法人 防蟲科學研究所推奬

蟲研 南京蟲驅除劑

特長 이人畜에 無害한 微細한 粉末은 虫의 通路에 뿌려두는것만으로 그곳에간 빈대의몸둥이에 무든채 도라가므로 永續的인 撒布의效力을 나타내고 이에무든 同族全部는 數日로서 全滅합니다 定價 六十錢

朝鮮總代理店 京城株式會社 新井藥房

北鮮代理店 清津株式會社 新井藥房

◎人一代의"凶吉"運命을左右하는!

新姓名學과 이름짓는法

好評重版出來

姓名學上으로본正當한姓名으로凶運한분이幸運을엇게되고 ...

號를고쳐서 商業이 繁榮하는 等改名으로해서 運勢가 轉換한幾多의實例가잇다 幸運을바라는분은 아무나될수잇는姓名開運法을보고 改名命名에應用하여幸運을잡으라! 三冊合本

撰名鑑定進呈

定價一圓六十錢

東京市麴町區 日本姓名學館

◎葉書로申込次第後金引換便(金一圓七十錢)으로急送함!

長篇小說

靑春茂盛 (74)

李泰俊 作 鄭玄雄 畵

과도는옥지까지 (三)

『선생님!』

말은 은심의 입에서 먼저나온다. 뜨거운 숨이 확확 끼치는 치원의 입은 대답대신 은심의 입을 더듬는다. 은심은 질착하게 얼는 입만을 피한다.

『선생님?』

『……』

『……』

『이리심 아재요』

『네?』

은심은 이내 울어버린다. 눈물에 젖은 얼굴에서 치원은 물러나지 안흘수 업다.

『선생님?』

『은심헌테 무슨 비밀이 잇지?』

『아마?』

『제가 정말 조흐세요?』

『지금 그런걸 물어야허나?』

『제가……』

『은심은 내게 감추는 데 잇나바……』

『제가 더 어떠케 드릴게요』

『얼마나?』

『아무런 낼배엔 안 갈게요』

『다시 일주일!』

『전두 괴로운거 선생님은 다 모른세요』

『언제 나헌테 말해주엇소 은심이 괴로운걸?』

『……』

『왜 나헌테 정말흘안해요?』

『……』

『떠나두 조와요 단 한마디만 분명히 남겨주시오』

은심은 흐트러진 머리를매만지며치원을 물그럼히처다보다가

『기달려 달란 한마디만 오늘 밤 내게 들려주시오。』

『……』

『그 한마디면 난 평생이라도 땟잔소』

『……』

『나또 지금은 한 여인이나안해를가질 아모런 준비도업소』

『……』

『난 내자신 지금 얼마의 변혁을 계획하고 잇는거요』

『그건 내자신의 발전이 될지 그냥 변동만에 끄칠진 몰라두……』

『……』

『여름동안엔 동경 게신대지오?』

『건 어떠케 알어요?』

『정선이헌테요』

『가을엔 다시 조선 갈 작정이오』

『될허시나요?』

『돈을 벌 작정이온』

『될 허세서요?』

『모험이겐 업지오』

『성공허심?』

『건 아직 말헐순 업구……』

『선생님?』

『네?』

『전 가을두 떠나두 괜찬어요 절『교렌도』으로만 사랑해 주세요』

『……』

『제가 가을까지 선생님 모시구 잇슬게요』

『그럼 가을까지만 말는 나헌테 영영 해줄수 업단 말이지오?』

『……』

『네?』

『네에』

얼마뒤에 둘이는 다시 자리에 누엇다. 한참도 편히 들지못햇다 다시는 아무말 업시 날을 밝혓다.

조반을 먹는데 하녀는 『링컨』호가 드러왓다고 알려주엇다. 그러나 은심은 치원의 권고까지 듯지안코 세판(稅關)에 맛기엿던 짐까지 도로 차저가지고, 마치 신혼여행이나 떠낫던 신혼부부처럼 서로 어색한 우슴을 지으며 가즈런히 동경으로 드러오고말엇다.

쇠잡긴 현관을 치원이가 열쇠를 꺼내 열려고하는때이다.

『선생님?』

은심은 발노름을 하듯 처다보며 치원에게 뭇는다.

『네?』

『저와 약속해 주시겟서요?』

『무슨?』

『저헌테 한자 어내 가까히안오실것』

『한자?』

『네』

방그시 우스며 처다보는것은 한자가리의 가시가 도젓다하기로 수저하고는 견듸기어려운얼굴이다.

『약속이란 상대방과 의견이 일치돼야 성립되는것아니오』

『그리게 동의허세요』

『동의헐수 업는데……』

하면서 문을 연다.

『그럼 저 안 드러가요』

하고 은심은 색쭉해돌러선다.

『강제약속두 잇나?』

『선생님 접때 저헌테 허신말씀 이즈셧세요 그새?』

『서로 조흠 이내 연애와결혼부터 생각허던것?』

『그건 맹목적인 인습이라구그리셋조?』

『지금두 그러켄 생각허우켯정 말두 드리와요』

『한자『원 푸―트』 애요 네?』

『펀 피―트라두……』

하고 두리는 비인 집속을후스며 드러선다.

阿娘所演

"金玉均"을보고

언제 어느 극단의 무엇이나 발표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칭찬이 잇스면 책려의말이 따르는것은 물론이다。만약 그러치안코 어느편이고한쪽으로만 그평이 기울어진다면 그꾸여본 크게 섭섭하엿거나 그러치안흐면 야주설때하여 엿거나이 느낄것이다。하여튼나는지금 아랑(阿娘)의 「김옥균(金玉均)」 청남을보고는끼바멧마디소감을적으려붓을들엇다。

그것도 이러타할 「히노닌」 어업는、말하자면 극히 흥행적으로 보아서 위험천만한 생강한 「드라마」 를 들고나온답

기간하 기묘한 복선을 너허가며 끗까지 어렴어나 도독꾸미엇다는데이다。그러나 후면이라는데 기서는 좀 못끄를 다른곳으로 옮지오를통을작자는왜 느끼지안핫슬까。그게 궁금하다。연기자에잇서서는김옥균으로 분장한 황철(黃澈)군이 비록 유체적 조건은

렴은、나는 차차 말과 말을 보아가면서 정작할수가 잇섯다는것을 우선 말해두기로한다。

먼저 원작자에게 치하하고 시픈것은 그기켜 착찹하고어느 모로 보든지 지금잇서서 손대기어려운 까다로운 소재를

배역으로 보아 불리하엿슬지 모르나 자기의 가진바 성량(聲量)을 구사하는데 잇서서는가장 효과를 보게 하엿다。

이와반대의 어야기를 할수잇는 연기자로서는 홍영식(洪英植)으로 분장한 서일성(徐一星)군일것이다。그는 어디까지나 저력잇는 연기를 보여주면서도 「엘론최―金」의 부수로 숨이 가빠지는것을 몰 때 아까웟다。양백명(梁白明)맹만식(孟萬植)등 제군은 언제나 무난한 연기자라는 인상을주엇다。그리고 죽첨(竹添)공사와 원세개(袁世凱)를 한꺼번에 마른 유장안(柳長安)

安군이 의외로 할약을 보여주엇다는것은 새운희열이다。그리고 끄틀로 한가지 연출자에게 말하고시픈것은 어떤 『김옥균』에서도 그러케지만 언제나 이곳 연극에는 소도구(小道具)가 업다는것이다。소도구가 업기때문에 장치대로 인물은 언물대로서로 동떠어저 보인다는 것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제인식할필요가 잇스리라 생각한다 는 조흔 「라잇트・맨」 이 필요하다。어……(中略)……

趣味 娛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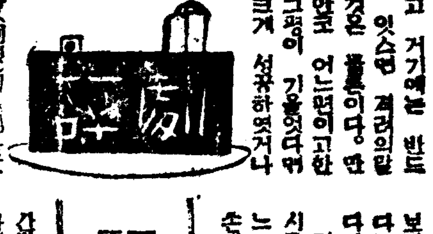
映畫令施行細則

七月一日부터實施

조선에서는 비로소 처음이라할수잇는 문화령으로도 내지영화법(映畫法)과 그목적과취지를가치하여 드디어 지난일월사일에 전조선적으로 공포를보게된 영화령은 그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각영화제작회사에 미치는바 또이의되는바 적지안하 이것에따르는 방공가치 영화인협회(映畫人協會)란 새로운단체가 생겨난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전기 영화령의 시행세측(施行細則)은 이것이 미치는바 영향이란 잣못 일반업게뿐만 아니라 각방면으로 심대한점이잇스므로 그후 총독부 관계당국에서는 신중히 회의를 거듭하고이섯던바 이미 그시행안도 되어서 방금 도서과(圖書課)정수(井手)사무관이 이것을 휴대하고 내지 관계당국에 양해를 엇고잇는중인바 느저도 이달중순에는 동사무관이 돌아오게될모양으로 마치내 오는칠월일일부터 시행하게되엇다。

이 시행세측은 수로 내지 양화를 기본으로하고잇스나 조선영화의 조성등 조제한 조선의특수사정을 참작하고잇스며 여기에 따르는 배급문제도 논의되고이서서 크게주목을 끌고잇다



高映富平撮影所 드디어工事着手

시내고영영화(高映)사에서는 부평(富平)의 일만일천평의촬영소건축지를 드디어 지난팔일부터 터를 닥기시작하엿다는바 오는이십삼일 오후세시에는 동사의 전속감독배우와 영화이연회 흥행협회 관계자등을 초대하여 성대한지진제(地鎭祭)를 열리라한다。

新響 京城公演

15・16 府民館에서

동경(東京)악단에서 뿐만아니라 이미세계적으로도 권위를가지고잇는 일본신교향악단(日本新交響樂團)일행 칠십여명은 이번에다시 두번째의조선방문공연을 하게되어 오는 십오 십륙이틀동안 시내태평통 부민관(府民館)에서 경성기독교청년회(京城基督敎靑年會)주최로 근래에 보기드문성대한 『오―케스트라』의 밤을 열게되엇다는바 첫날과 둘째날의 『푸로그람』을 각각소개하면 다음과갓다

▲第一夜

(1)交響曲 第五番C短調 베―토뻰曲

(休 憩)

(2)『한여름밤의꿈』으로부터(夜曲과結婚行進曲) 멘델손曲

(3)『모르다우』 스메타나曲(交響詩『나의祖國』第二)

(4)세가지舞曲 스메타나曲(歌劇『팔린新婦』에서)

(가) 포르카―로

(나)喜劇役者의춤

第二夜

(1)交響曲 第六番 (田園)

(2)『허카리―』舞曲(第五番과第六番)부람스曲

(休 憩)

(3)無窮動 요한・슈트라우스作

(4)喜歌劇『蝙蝠』序曲 요한・슈트라우스作 (以上)

차이코프스키―作

※

阿娘『金玉均』讀者優待券 (人一枚一)

▲時日……6月7・8・9・10日 四日間 晝夜 晝…十二時半부터 夜…七時半부터

▲場所……府民館

▲劇本……林仙圭作『金玉均』 (六幕九場)

▲注意……此券持參者에 限하여 入場料 一圓을 七十錢으로割引함

▲『존・바리모어』銀幕에 復歸…어신세기 쯔든 『위대한 푸로필』의수연자로서 그동안 『존・바리모어』 와 피설중이던바 그러케된사

壯士의 恨

野談 度秋崗 ④

저왓슬까……이애 절룸아네 가 또 무슨작란이나 안햇니……』

『아니라요 날더러 공부하라구 그린다드……』

『공부하라구 너 어찌 그 양반을 알엇기에 너더러공부하래 응……』

『그런게아니라요 아까 접으로들러니까 그냥반이뒤에서 붉은길에 돌아다보니가 면체잇는나구하기에 엽세에 낫다구해지 그랫드니 날더러 그이를 넘어는러 보리고하기에 가슴을 떠다밀고 했드니 그이는 찰몸히무겁더다。 양반님 어도 모장할연

절룸이의 어른 용이는고 기지게를 자기집 마당에내 려노코 개흙이무더 시커머 케된 발를 씻드라고 뒤틀우물아레서물통에 발을 잠그고 다리에 무든 개흙을 문주히 씻서내리는데 절룸이가 들어오며

『아버지 아버지 저기양반 손님왓소 어서 나가보우』

『무어야 양반손님이 왓서 양반손님이라니 어디 양반이 왓서 이애야누구는……』

『몰라리우 저 키 커다쿠 할메고와서리우 어서 나가 보우……』

『혹 양반손님이 어제저녁

험의다 그러니까 그양반 어 날더러 하는말이 힘은 장사라도 공부를못해서 그 려라구하면서 아버지를만나 보자구해요……』

『무어야 어것 큰일낫구나 내그저 어녀석이 또어드로 갓나 어때까지안오니 하고 지금막 걱정을 하는중인데 허둑사 어것 큰일낫구나글 세 어녀석아 어른을 더구 나양반을 넘어트리다니홍 속으로 걱정을 무수히하며 불이나케 겁례로 발 다리를 훔치고 박그로 나가서 한량아레 허리를 굽실하고 두손을 마주대고 썩썩비벼

면서

『누구신지 그저 서 철업는 어린 무뚜한 놈이 잘 못한것은 가번 속여도 아까지 안으오나 그저 이놈보서서 용서 해출소사……』

이처럼 고개를 여번이나 꾸벅거리며 애걸을 하는용이를 물끄럼이 내려다보고 섯던 한량은 오른편손으로 어 해괘내저으면서

『허 이사람 이게원말인고 저 절룸이가 무슨 잘못한일이 잇서서 그러케 어니야 그리말고 내말을 좀들 어보라구……』

용이는 무슨 벼락불덩이가 뜰동려어 나올줄 알고 미리 허리를 구피고 머리를 수겨 사죄를 하려고 그한량의 얼굴을 한번 처다보랑의 태도가 매우 순후한 데다 절룸이가 무슨 잘못 함이 업다는 말에 적으이 안심되는 듯이

『네 그저 이런 바다가에서 생장하는 무무한것들이 무엇을아오리까 그저 모든 잘못은 용서하세야지……』

역지 두손을 썩썩비비며

고개를 연방 굽석굽실하는 용이에게 더욱 순후한 태도로

『아니야 그런게 아니야 내가 무슨 청을 할게 잇서서 좀 만나보려한것이니

조곰도 그리 불편히 생각 말고! 우리끼 인사가 느젓군 대감절 뉘댁어라하지』

『네 황송하옵지 뉘댁이라 노 날이보잘것를 용이라하

어디 조용히좀 만나볼데가 업겟소……』

용이는생전 처음으로 이러케 점잔해뵈는사람을 대하는터에다가 그말하는 거조

옵지오 그리고성은 김가외다……』

『허―김생원이요 할사가 용이라흐옵。그런데 나는저충청도사는 임숙군이요 한데 잠간상의할일이 잇서 하니

가 대단히 다정해서 그러지 안하도 비록 누추한곳이나마 들어가안기를 청해볼가 하고 주저주저하는데 그한량이 먼저 조용히 상의할말이 잇다하는것을 더욱 다

행히 생각하고

『참 저지말곳을 못한것은집 이라고 옥우석가치 더러워서 말씀을 못해요이다 저 안방으로 들어오시게요……』

『허 이것봐 대단하군그럼 잠깐다리좀 쉬여갈박게 이애 절룸이도들어가자……』

이 임숙군과 김용이가 서로마 주안저서 겨뎌서잇는 점들이에대한말을 시작하는데입 숙군이먼저 절룸이를 아페 안치고 용이를대하여

『여보 김생원……』

하고 말을 내려할때에 용 이는 쭈크리고 안즌 몸을 점점 방 구석으로 웅절움 질 물러 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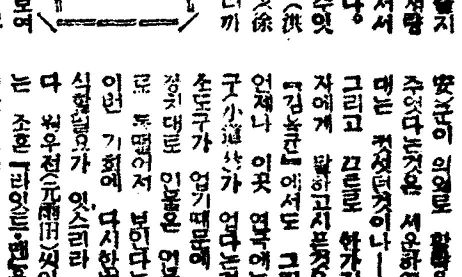
『원 황송하서라 용어려고 들을 두고 무엇을 그리겁 사를 하란말이요 저애가장 래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 말들이오 여보 그런 견사의 말은 고만두고 저애를 내게 한십년가량하고 맷겨주면 공부를 잘시켜서 장래에 참으로 훌륭한 사람 을 만들어줄테니어떠켓소』

용이는 이 말을 듯고나서 하겟다 못하겟다 말이 업시 다만 손등으로 두눈을 이리저리 훔치면서 흑 흑 느끼며 울기만 하엿다。

(계속)

靑春의『포―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국사진전람회에서 당당히 일등의 영예를탄『윌리암A』씨의 『청춘』이란 무용의 『포―스』입니다。보기만하여도 씩씩하고 장쾌하지안습니까。



歌謠曲 (九日午後八時)(中繼)

一・興亞의봄 (秋湖 詞, 李冕相 作曲) 白年雪 趙白馬 伴奏 京城放送管絃樂團

풀럭기 가득코야 녹색의벌판 실바람 보드러워 소사스는곳 오너라 너도너도 봄동산으로 오색꼿 수를노흔 어정의백년

三・希望의뱃길 (金光鉉作詞 金駿泳作曲)

안개낀 포구에는 갈매기가날고 거리에 푸른물결 논속으로붓는다

감어라 감어라 큰닷줄을 감어라 희망의 마도로스 먼뱃길을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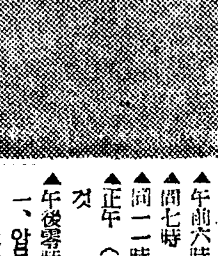
修養講話 (九日午後七時五分) 人間三淨化 鄭廣朝

다음과가튼 강좌를 해볼까합니다。수양

一、자기정화에대하야

二、가정정화에대하야

三、환경정화에대하야



九日(日曜)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 (東)時報 오늘의안두실것

▲午後零時五分 하―모니카獨奏 一、압록강뗏목노래 古賀政男作曲 二、봉곳다발 萬城目正作曲 三、꼿파는廣東아가씨 上原げんと作曲 四、여꼿저꼿 古賀政男作曲 五、무라사끼小歌 阿部武雄作曲 六、滿洲아가씨 鈴木哲夫作曲 七、大陸의歡聲 倉若晴生作曲 金城園 기타― 伴奏 趙敬彰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名曲鑑賞 『겨울나그네』 슈베르트作曲 解說 朴泰俊

▲同二時 京城實業野球春季리―그戰實況(國民)但決勝戰이 有한……

▲同六時 (東)講演 『人間三……』 鄭廣朝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歌謠曲 (紀元二千六百年記念懸賞當選作) 一、興亞의봄(白)秋湖作詞 李冕相作曲 二、山有花(趙)友軒作詞 金駿泳作曲 三、希望의뱃길(白)金光鉉作詞 金駿泳作曲 四、물레갈는처자(趙)金貞姬作詞李冕相作曲 五、純情의꼿장사(白)朴夫歹作詞 洪蘭坡作曲 白年雪 趙白馬 伴奏 京城放送管絃樂團

▲同八時五〇分野談 『閻羅王』 吳翊根

▲同八時五〇分西道歌謠 一、寧邊歌 二、山念佛 三、朴淵瀑布 四、방아打鈴 金玉姬 李紅桃

▲同九時一〇分歌詞 一、白鷗詞 二、길군樂 韓翊鉉 韓錦紅 大琴 金永根 杖鼓 李斗峰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合唱 ▲同一時 (東)傷病將士慰問 ▲同六時 錄音(大)이야기 ▲同六時二五分 (京)文化講座 ▲同七時二〇分 (城)物語 ▲同八時 聽會 ▲同八時二〇分 (東)物語 ▲同八時五〇分 (大)浪花節 ▲同八時五〇分 (大)淨瑠璃

十日(月)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 『사라다』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〇分 (東)天皇陛下 豐受大神宮御親拜全國民遙拜時間

▲正午 (東)時報 오늘의안두실것

▲午後零時五分 피아노(레코―드)

▲同零時三十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講演 『때』의記念日을當하여 沈亨弼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成興)

▲同一時五四分 (東)天皇陛下皇太神宮御親拜全國民遙拜時間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童話 『時計의歷史』 李東一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支那語講座(一七) 李相殷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 農業報國週間 『農業報國週間實施에對하여』 總督府事務官 金熙禮

▲同八時一〇分 講演 『利潤統制와物價』 徐椿

▲同八時三〇分 野談 『天賜萬兩』 崔汝成

▲同八時五〇分 南道歌謠 一、六字백이 三、興打令 鈴 蔡淑子 朴祥仙

▲同九時二〇分 알르―獨唱 一、사랑의 歡喜 마르티―니作曲 二、풀룬틴드여忠實하라 스칼랏티作曲 三、기다림 밀라―도作曲 四、歌劇『로미오와줄리엣트』中 잘들엇거던깨여라 도니제티作曲 韓英子 伴奏者 李賢道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合唱 ▲同一時 ▲同八時五〇分(大) 文化 ▲同六時 (京)尺八合奏 ……

十一日(火)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오늘의안두실것

▲午後零時五分 新民謠 (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 『胃腸과健康』 醫學博士 朴容來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俗談解說(二) 어린이 係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産業講座 『大麻、苧麻』 黃完秀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 農業報國週間 (二)『時局과農業生産力擴充』 京畿道産業部長 李昌根

▲同八時三〇 京畿歌謠 一、赤手單身 二、赤壁歌 三、바위打鈴 四、방아打鈴 張貞淑 金光泰

▲同八時三〇分 라디오隨筆 (咸興) 嫉妬의罪―李文芳作―白和効 尺八 保田湘凡軒

▲同八時五〇分 大笒獨奏 散調 二、송모리 三、자진모리 朴鍾基 杖鼓 韓成俊

▲同九時 浪花節 『嗚呼李仁錫上等兵』 猿八根 三味線 槇本滿壽子 伽倻琴 朴成玉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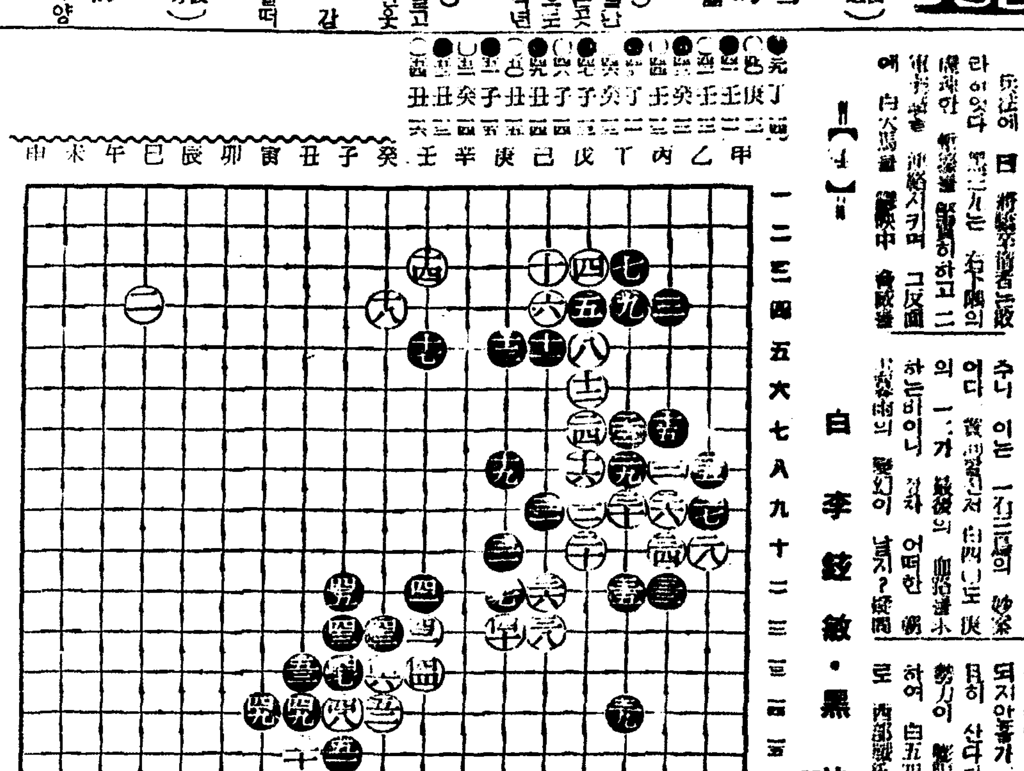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六二) 金 圓 姬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管絃樂 ▲同七時四〇分 ▲同六時三五分 (大)講演 ▲同六時 (東)國史劇 ▲同八時三〇分 (東)時局讀本 ▲同八時四〇分 (東)靑年時間 ▲同九時 (釜)座談會



棋院下新人戰棋譜

黑四一軍 學盤步

西部戰線이蜿蜒白里

觀戰記 權 秉 郁

白 李銓敏・黑 沈福鎭 (四月十八日)

【4】

……이는 一石二鳥의 妙手이다 [illegible] ……白四一로 退하는바이니 정차 어떠한 ……

日本のタイヤ

五分の1に巻く 普通・一人の量

イカリ ソース

大陸劇場 6月7日ヨリ上映時間表 スヽ頃任ス頃 10・30 一き貴一き 12・04 3・33 7・10 ユ若のユ若 二君涙二君 1・59 5・23 9・00

京城寶塚劇場 黃金座改め 8日ヨリ12日マデ ニユース 10・00 2・05 6・20 歷史 10・10 2・15 6・30 ニユース 12・05 4・10 8・20 翼の人々 12・15 4・20 8・30 入場料50セン均一 9日(日曜日)ハ午前9時30分始映

劇團高協 巡回日程 六月八日 九日 十日 雄基 十一日 十二日 十三日 南陽 羅南 … 春香傳 五幕八場 燈籠 어머니

京劇 本 七月ヨリ十四日マデ 新興京都大作 或る女の告白 女人峠 ニユース

若草東寶 6月9日より上映時間表 征戰 姉の出征 5・30 12・30 3・35 6・50 獨逸の電擊作戰 10・40 1・45 4・50 8・10 ニユース 衛兵長院隨幡 11・00 2・05 5・10 8・30 『支那の夜』 愈々十四日封切

明治座 6月3日ヨリ9日マデ 結婚の價値 11・56 3・26 7・00 ニユース 10・00 1・30 4・58 8・20 カツスル夫妻 10・19 1・49 5・22 8・46

新富座 六月七日―九日 月形半平太 ジヤツガル

第一劇場 六月六日ヨリ四日間 颱風(ハリケーン) 密林の復讐 東京ブルース

和信映畫館 科學映畫 スーポッ映畫 極彩色

東洋劇場 春香傳 六月九日

優美館 六月九日より公開 大平原猛虎隊 キートンの顔役 せつなき心

桃花劇場 六月七日―十一日マデ 大平洋の翼 授業料